

5월 동행축제 총 매출 4,366억원 기록

- 우수상품 선별 특별기획전, 민간협업 활성화, 누리집 통한 직접판매 기능 도입, 온라인 판매성과 확대 등 동행축제 내실화 주력
- 9월 축제는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인천, 세종, 나주, 춘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또한 온라인 판매성과 제고 등 동행축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수상품 선별,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제품 직접구매 기능 도입,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유도, 입소문(바이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강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들도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쿠팡·롯데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 제품(‘동행 300’)을 대상으로 특별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활력회복을 뒷받침했다.

7개 카드사는 백년가게·전통시장 이용 할인·적립 이벤트*를 진행하여 1만 5천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해당 혜택은 총 27억원의 매출로 이어졌다. 카카오(톡딜), 배달의민족(픽업할인)도 다채로운 상생 소비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을 응원하였다.

*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NH농협·KB국민 / 백년가게·전통시장 3만원 이상 이용시 10% 할인 등

우수 판매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한 ㈜신사강(김치찜, 대표 홍사랑)은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파인드프로덕츠㈜(접이식 카트, 대표 송재호)는 3억원을 달성하여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번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83만명이 환급혜택을 받았다.

* 5.11~9.30까지 5개월간(20회차),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 환급(최대 2만원)

전국 22곳에서 열린 지역 판매전에는 약 200만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홍보대사 가수 ‘선’이 출연한 숏츠영상은 누적 조회 360만회, 누리집 방문자 수 18만명, 경품·후기인증·할인 이벤트 참여자 수 4만명 달성 등 각종 지표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뛰어넘으며 동행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소비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9월 축제에도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판매촉진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판매활력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미란 (044-204-7266) 임예지 (044-204-7225)